

# 도서관 가는 길

꿈꾸고  
독서칼럼  
도서관이 만난 사람

이루어지는  
추천도서  
기획기사

도서관  
도서관 행사 / 도서관 소식  
글마당



김해팔판작은도서관 참여미술 <동네사람 다 모였네(2019)>

# CONTENTS

## VOL.44

2021년 통권 제44호 제28권 1호



### COVER STORY

김해팔판작은도서관 참여미술  
〈동네사람 다 모였네(2019)〉  
가족의 얼굴과 그리고 싶은 사람 얼굴 그리기



[lib.gyeongnam.go.kr](http://lib.gyeongnam.go.kr)

〈도서관 가는 길〉을  
경남대표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월 2021년 4월

발행인 공공도서관경상남도지역협의회장(경남대표도서관장)

발행처 경남대표도서관

(5113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대표전화 055)254-4811 | 팩스 055)254-4819

발행등록번호 76-6481183-000001-09

편집·인쇄 (주)경남신문사



06

### 꿈꾸고

#### 04 독서칼럼

최영욱 시인(박경리문학관장)

진형민 작가(2020 경남의 책 선정작가, 『소리질러, 운동장』)

#### 06 도서관이 만난 사람

박연목교육박물관과 박연목 선생



15

## 이루어지는

- 11 사서 추천도서  
청소년 추천도서
- 12 작은도서관유랑기
- 16 사서 추천도서  
일반 추천도서
- 18 책은 어디에나 있다① 스마트도서관
- 20 책은 어디에나 있다② 지역독립서점
- 25 사서 추천도서  
아동 추천도서



29

## 도서관

- 26 상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도서관 주간, 강연 등
- 30 경남공공도서관소식  
리모델링·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36 글마당  
도서관이 열지 않는 날에 우리는
- 41 시  
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80살 가시나의 가족

# 읽는 재미, 나누는 재미

글 최영욱 (시인, 박경리문학관장)



어느 소설집을 읽다가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다. ‘사는 재미도 없고, 먹는 재미도 없고, 입는 재미도 없었다. 오직 읽는 재미뿐이었다’. 허나 이 책은 어떤 글이 재미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과연 어떠한 글들이 재미지고 나누고 싶은 글일까를 생각하다가 필자가 늘 끼고 사는 책들에 시선이 갔다. 평소 좋아하는 작가, 시인 또는 문학평론이나 미술평론가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팔을 뻗치면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책들이다. 더러는 비서(秘書)라고도 부르나, 내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친구 같은 지침서이다. 서점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후 좋은 문장, 따스한 줄거리, 가슴을 세차게 뒤흔드는 활자들에 끌려 대여섯 권을 주문한다. 이렇게 주문한 책들은 기호와 성향에 따라 지인들에게 선물하곤 하였다. 하여 같은 이유로 선물 받은 책들도 다수 끼여 있음도 물론이다. 이러한 책들을 읽기엔 겨울이 딱 좋다. 외풍 선 골방에서 담요를 입까지 끌어올리고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며 읽어야 제 맛을 내는 책들이다.

이러한 보물 같은 책 중에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최성각, 동녘)가 있다. 이 책의 서문에 “책은 피로에 지친 나를 덮어주는 따뜻한 담요였고, 세찬 비바람을 막아주는 천막이었고, 아주 기쁨은 모닥불이었고, 때로는 등불이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책은 회초리였으며, 죽비였으며, 이정표가 되기도 했을 터이다. 이러한 문장들을 필사하며 보냈던 옛 시간들이 아득하여 아련하다. “만 권 서책 중의 좀벌레가 되고 싶다.”던 허균과 동시대를 살았던 명나라 말엽의 은둔 선비 진계유는 “문 닫으니 예가 심산이요, 책 읽으니 이곳이 정토로구나(閉門卽時深山 讀書隨處淨土).”라고 읊었다. 아마도 이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긴 것 아닌가 싶다. 기운이 맑은 도량과 대궐 같은 집이 아니어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고즈넉한 심산일 수도, 정토일 수도 있다는 말에 크게 공감하고 마는 것이다.

얼마 전 섬진강가에 있던 ‘서재’를 옮기면서 오래 묵힌 책들을

떠나보냈다. 몇 묶음은 마을문고로 보냈고 또 더러는 지인들의 서재로 옮겨 갔다. 한 시절 동무가 되어주었던 책들을 보내자니 많은 고민이 뒤따랐다. 이런 고민을 한 까닭은 필자가 옮겨간 새로운 ‘서재’엔 그 책들을 보관할 공간이 턱없었음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서가에 꽂힌 채로 읽히지 못하는 책의 운명에 대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하여 필자는 책이 지닌 운명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책은 ‘읽혀야 산다.’는 말이 꼭 하고 가슴을 찢었던 것일 터이다. 그렇게 나눠진 책들이 누군가의 가슴을 데우고, 묵은 책들의 냄새에서 평온함을 느꼈다면 더없이 좋은 나눔일 것이라서 좋았다.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책들의 사명을 짧은 인생사를 지닌 인간들에 비하랴만. 사람으로 하여 쓰여 지고 만들어진 그 활자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비고 또 더러는 살찌운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종이인가.

다시 책이 쌓이기 시작한다. ‘책의 세계는 따뜻하면서도 푸짐했고, 언제나 과묵했음이 경이로웠다.’라는 말에 고꺾 꼬덕이며, 잡독(雜讀)으로 일관된 필자의 책 읽기도 이젠 오독(誤讀)일썤다. 세월이 눈을 깊어 먹는 걸 누굴 탓하라.



독서칼럼 ②

# 어둠의 시간을 버티는 힘

글 진형민 (2020 경남의책 선정작가)



동화작가.  
『기호 3번 안석뽕』, 『꿀뚜기』, 『소리 질러, 운동장』,  
『사랑이 훅』, 등을 썼다.

나는 2019년 12월에도 미안마에 다녀왔다. 코로나19로 곧 발이 묶일 줄 모르고 내년 여름에 다시 만나자며 친구들과 흔쾌히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몇 년 동안 미안마에 자주 간 이유는 도서관 때문이다. 한때 미안마 수도였던 양곤 외곽 주택가 골목에는 내가 줄곧 지지하고 응원해 온 따비에도서관이 있다.

마웅저는 따비에도서관의 문을 처음 연 사람이다. 그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오래 살았고, 고국의 민주화가 시작될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가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어린이책을 직접 쓰고 만드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미안마 어린이들을 위해 책 보내는 일을 해 왔으니 펍 자연스러운 행보였다. 그의 한국 친구들이 멀리서나마 도서관 일을 돕고 있고,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나는 한번씩 틈을 내어 따비에도서관에 놀러가곤 했다. 비행기를 다섯 시간 타고 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도서관 골목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청년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둘러앉아 미안마 음식을 먹는 일들이 다 좋았다. 저녁이 되면 마웅저의 이런저런 고민들을 듣기도 했다. 그는 책과 도서관과 교육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가 하는 일들이 미안마 사회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걸음이 무겁겠다 싶었지만, 다행히 그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 활동가들이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어린이책이 가득한 도서관을 놀이터 삼아 들락거렸다.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안 돼!” 소리에 익숙해 있던 아이들은 “뭐든 해도 괜찮아.” 하는 어른들을 신기하게 쳐다봤다. 그렇게 북적이던 도서관에 갑자기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다. 코로나19는 미안마의 작은 동네에까지 들이닥쳐 모두를 숨죽이게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안마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다. 한국처럼 비대면 수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초중고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한 학년을 유급했다. 도서관에서도 아이들과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그래도 도서관 문을 아주 닫을 수는 없었다. 책을 빌릴 수 없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관 안팎을

매일 방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잠깐씩 도서관 문을 열어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기로 했다. 길에 버려진 마스크를 주워 쓰는 소수민족 아이들에게 새 마스크를 나눠 주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고립된 아이들 곁에서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하고자 했다.

올해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덕담을 나는 지 얼마 안 되어 미안마로부터 다급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2월 1일 아침,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여 대통령과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모든 방송 송출을 중단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 것임을 공공연히 선포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미안마 시민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역사적 시간을 살아 내고 있다. 공무원들의 파업이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쿠데타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경찰과 군인들의 실탄 사격으로 사망한 시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들 중 다수가 총격에 의한 머리 부상으로 죽어 갔고, 평화 시위 중인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을 한 군인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매일같이 미안마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미안마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하면서도 도서관 활동가들 걱정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한 활동가는 시위에 나갈 때마다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그들에게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거듭하면서 나는 마음이 아팠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친구들을 잃을까 봐 겁이 났다. 따비에도서관은 아직 문을 열고 있다. 활동가들은 매일 함께 시위에 나가면서도 순번을 정해 한 명씩 도서관을 지키는 중이다. 모든 것이 멈춘 세상에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 주기 위해, 아이들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다.

어제는 도서관 가까운 곳에서 처음 총격 사망자가 나왔다. 그럼에도 내 친구들은 오늘 다시 시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책을 정리한 뒤 도서관 문을 열 것이다. 부디 그들이 이 어둠의 시간을 버티어 낼 수 있기를, 책과 도서관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 낼 수 있기를!



박연묵교육박물관과 박연묵 선생

## 나의 일상이 우리의 기록이 되는 순간

오래된 가정집이 박물관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천시 용현면에 위치하고 있는 박연묵박물관에는 우리가 흔히 박물관을 떠올렸을 때 있음직한 그럴싸한 건물 대신 낮은 가정집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교사자료실, 교과서자료실처럼 딱딱한 명칭 대신 교사시절의 집, 학창시절의 방, 추억의 집 등 금방이라도 교사시절의 풍경이, 학창시절의 추억이 펼쳐질 것만 같은 이름들로 이루고 있는 진주교육대학교 부속 박연묵교육박물관에서 박연묵 선생님을 만나고 왔다.





교사시절의 집

“나는 일반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지 않는다. 내가 올해 88세인데 지금까지 여기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했다. 반드시 가이드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다.”

「도서관 가는 길」 취재를 위해 왔다고 하니, 박물관 안내를 해주시기 전 교사시절의 집 입구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선생님은 미래의 가이드 후보들에게 방명록을 쓰게 하시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교과서를 발행할 때의 시대상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 발행한 교과서들이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삽화를 보면 초가집이고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내용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교과서들은 ‘잇과’, ‘우리나라의 발달’, ‘초등공민’ 등으로 이름부터 달랐다. 모두 선생님이 학창 시절부터 교사 시절까지 모아 온 것들로, 특히 미군정기<sup>1)</sup>에 발행되어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교과서들을 비롯해 학교에서 발간되는 각종 기록물들이 스크랩북 형태로 보관·전시되어 있었다. 교과서를 설명하시던 선생님의 손길은 자연스럽게 우편물 모음집으로 향했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받은 우편물이다. 한 장도 빠짐없이 여기 다 있다. 매년 월별로 모아서 12월 31일에 싹 다 분류하고 정리한다. 편지를 받은 장부, 보낸 장부가 따로 있다. 40년 전에 철수와 어떤 내용을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편지를 쓸 때 목지를 넣고 써서 보낸 편지도 함께 보관한다.”

선생님께서 일생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고는 하지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추억이다. 나의 추억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뜻에서 그랬다. 나를 위해 편지를 쓰고 보내준다는 것이 고맙지 않다.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연이지 않나.”

1) 1945 광복 후부터 1954년 1차 교육과정 제정까지의 시기로 교수요목기라고도 한다.



추억의 집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교사시절의 집을 지나 당도한 곳은 학창시절의 방이었다. 교사시절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교과서를 제외한 학창시절에 사용한 교과서와 책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 방에는 선생님께서 진주중학교 유학시절(1949년)부터 지금까지 70여 년간 써온 일기장도 있었다. 학창시절의 방에 보관하지 못한 자료들은 건너편 책방·자료방에 있었다. 또한 각종 월간 잡지, 전과지도서 및 시청각 자료들이 있어 당시 대중들의 관심사와 유행을 알수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초의 컴퓨터, 타자기 등 선생님의 손길이 닿았던 각종 기자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한 평씩 구분되어 학생들에게 한 평의 넓이를 직접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꽃길에 펼쳐지기 직전 우리는 추억의 집에 도착했다.



박연묵교육박물관 박연묵 선생님

“여기가 왜 추억의 집인지 아느냐. 여기 있는 것들 다 내가 쓰던 것들이다.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버리지 않고 모아온 것들이다. 다 추억인 것이다.”

추억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사진들로 가득한 제자들의 방이 있는데,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단체사진들 위에 ‘사랑’, ‘인연’, ‘추억’이 머물러 있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졸업사진처럼 보이지만,  
 졸업사진이 아니다.  
 내가 담임한 학생들과 찍은 학급사진이다.  
 담임을 맡아온 제자들이 1500여명이 되는데 전부 이것  
 때문에 했었다. 인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연이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지 않은가.  
 그 다음이 사랑, 추억이다.  
 글을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글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추억을 배워주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추억은 똑같다.  
 추억 너머의 것은 본인의 일이다. 창의력이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 추억은 똑같다며 선생님께서 꺼내신 것은 ‘담임한  
 학생명부’와 검정색 파일이었다. 파일에는 벽면에 걸린 사진과  
 사진에 찍힌 학생의 위치대로 그린 그림, 그림에 적힌 번호대로  
 나열된 학생들의 이름이 있었다.  
 꽃길을 따라 농기구의 집, 우마차고, 그림의 집을 지나며 선생님께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모으게 됐는지 여쭙다.



교사시절의 집

“내가 어릴 때는 나라도 개인도 못살고 가난했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지기 어렵고 연필조차  
 사지 못할 때라 무엇이든 귀했었다.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오면 버리지 않고 아끼고 모은 것이 이 날까지 왔다.”

박연묵 선생님은 자신과 가족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태어나 자란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가정집이 박물관을  
 겸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여기뿐 일거라던 선생님의 말씀처럼  
 선생님은 집 또한 일상의 일부이자 기록의 일부로 여기며 함께  
 보존해 오셨다. 선생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추억은 선생님의  
 삶을 성긴 부분 하나 없이 촘촘히 엮어 우리에게로 이어져 기록이  
 되었으며, 이제는 공동체의 기억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 한다.  
 우리는 박연묵교육박물관을 통해 나의 일상이 우리의 기록이 될 때,  
 개인의 역사가 공동체의 역사가 되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었다.



추억의 집

㉞

흔히들 어렵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저 평범하게 자기를 길러준 직간접적인  
자료들을 소중히 관리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직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㉞

- 박연목교육박물관 소개 책자 중에서



# 청소년 추천도서



## 남매의 탄생

글쓴이\_ 안세화

### 추천 사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오빠의 정체를 밝히고자 십대 주인공이 거침없이 달려 나가는 이야기. 청소년 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하여 수상한 작품으로 오로지 스토리텔링의 힘으로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설이다

추천 거제시립장평도서관



## 신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글쓴이\_ 이상권

### 추천 사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신화를 쉽게 설명해준다.

추천 거제시립옥포도서관 황초롱



## 나에게 nada움을 주기로 했다

글쓴이\_ 고정욱

### 추천 사유

여러 생각과 고민을 가지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저자의 경험과 같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도움을 주고 nada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추천 고성동부도서관



## 프린들 주세요

글쓴이\_ 앤드루 클레먼츠

### 추천 사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의 교실이야기. 언젠가 한번 읽어봤는데, 인상적이었다. 어른인 독자가 읽었는데도 흥미로웠으며 성장동화로 추천하고 싶다.

추천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강귀원



##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글쓴이\_ 홍수열

### 추천 사유

분리수거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습관처럼 분리수거를 하지만, 막상 분리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에서는 헛갈리기 쉬운 분리수거를 쉽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이승해



##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가

글쓴이\_ 마스노 슌모

### 추천 사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고 걱정과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더 자유롭게 가벼워지길 바란다.

추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이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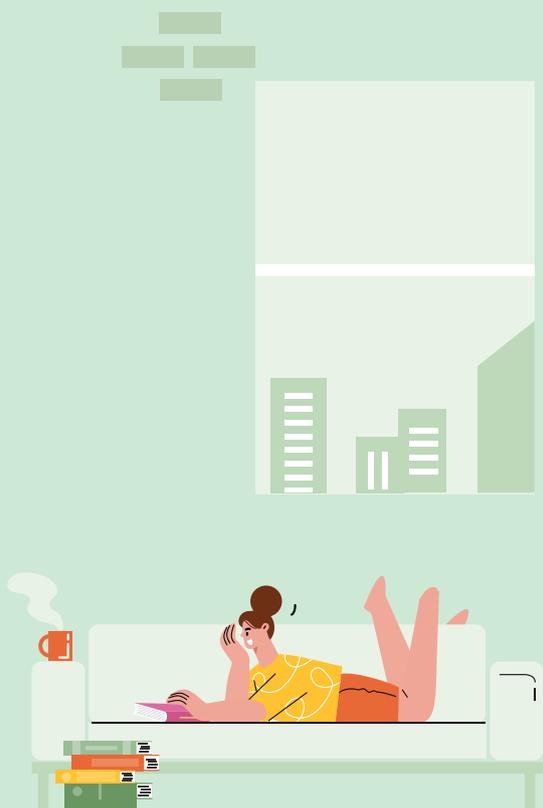
## 두 번째 엔딩

글쓴이\_ 김려령 외

### 추천 사유

이 책은 「우아한 거짓말」, 「아몬드」 등 큰 사랑을 받은 작품들에서 주인공이 아니었던 인물들의 이야기다. 미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큰 울림이 전해진다. 전작을 읽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엔딩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류주연





# 작은 도서관 유랑기

선비마을작은도서관, 악양작은도서관책보따리, 금빛마을작은도서관, 반도U보라작은도서관, 현동작은도서관, 밀양향교작은도서관... 나열하자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작은도서관들이 어느새 경남에만 435개관이 되었다.<sup>1)</sup>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컬은 '지역주민 밀착형 독서공간이요, 문화공간이며 장차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거점 또는 분관<sup>2)</sup>의 의미를 지닌 작은도서관은 15년이 흐른 지금 우리 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작은도서관부터 이제는 무르익어 지역과 상생하는 작은도서관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밀양달미작은도서관

2020년 6월에 개관한 달미작은도서관은 밀양연극촌이 복합예술공간 밀양아리나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함께 자리하게 되었다. 총 면적 100㎡ 규모로 달미자료실, 달미풍경방, 달미사랑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서 2,300여 권이 비치돼 있으며, 밀양문학 등 향토자료가 별도로 비치되어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관 연기, 임시 휴관 등 개관 첫해부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앞으로 밀양아리나를 방문한 지역민들이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 지식을 향유하는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다.

 주 소 :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16

 전 화 : 055)355-6052

 운영시간 : 09:00 - 18:00 (휴관일 :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1)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작은도서관 통계(2020년 기준)  
2)남영준 외,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국립중앙도서관, 2006), p.6



## 2 어른과 아이의 경계를 허무는, 김해안동문화의집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안동문화의집 북카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만화특화 공립작은도서관으로 2019년 11월 개관하였다. 4,000여 권의 만화와 일반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디지털자료실도 함께 갖추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웹툰창작장비 구축 및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소장 장서 중 웹툰, 만화 등의 비중을 점차 늘려 만화특화 작은도서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 주 소 : 김해시 삼안로 72

☎ 전 화 : 055)330-3225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휴관일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 3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여, 창원위드파크환경도서관

2015년 3월 개관한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은 2001년부터 위드파크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환경교육센터의 도서관으로 병행해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보조금이 끊기면서 도서관이 존폐 위기에 놓였으나, 마을대표회, 관리사무소, 지역민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2015년 작은도서관으로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파트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 '환경'만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지 않는 대신 동화 한 권을 고르더라도 가능하면 환경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된 책을 고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 관련 도서들을 따로 모아두고 있지는 않지만 서가 곳곳에 꽂혀있는 생태, 자연, 환경 관련 책들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020년이었던다고는 하지만,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은 잠시의 틈도 놓치지 않고 이전부터 지속해왔던 생태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어린이 대상으로 공원이나 계곡 등에 가서 사계절 생태를 체험하고 관련

생태놀이를 하는 생태놀이수업,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썩썩 생태놀이, 창원 내 둘레길을 걷는 성인 대상 숲속나들이길을 운영했다.

위드파크환경도서관장은 '사람이 많아야 도서관이 돌아간다'며 2012년 처음 관장을 맡게되었을 때 가장 먼저 독서동아리부터 만들었다. 그림책으로 아이들을 이해하는 주부 독서동아리 '북마마', 인문학을 중심으로 책을 읽는 '얹행', 가까운 요양원의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두런두런', 지금은 해산한 '개나리 독서모임'까지. 특히 '북마마'는 이제 직원의 참여 없이 모임 참여자들끼리 프로그램을 기획해 강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을 잇는 환경도서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위드파크환경도서관은 올해도 다양한 생태프로그램과 독서동아리들을 열어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99, (남양동, 위드파크아파트) 관리동3층

☎ 전 화 : 055)262-5944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토 09:00~16:00(일요일 휴관)



4

**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김해팔판작은도서관**

2009년 김해시 「책 읽는 도시」사업으로 개관한 팔판작은도서관은 2017년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사업을 통해 생활미술 특화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자원활동가와 운영위원들의 재능 나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지역의 협조 및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는 참여미술과 〈정자공원 어울림 축제〉가 있다. 참여미술은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손길을 모아 대형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작품은 ‘책+, 예술+ 공간’에 설치된다. 2019년까지는 도서관에서 다함께 책을 만들어 설치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참여미술 집콕프로젝트〉로 진행되어, 독후활동 키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정자공원 어울림 축제〉는 도서관 인근 정자공원에서 사서와 운영위원, 자원활동가,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빨주노초파남보 정자공원 그리기, 함께 만드는 아트박스, 그림책 뱃지 만들기 등 각종 부스들을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서관이 이대로 정체되어 있을 수는 없다는 운영진의 일념 하에 ‘도서관으로 온 정자공원’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내에서 진행되어, 운영진과 이용자들이 함께 도서관 내 기둥을 한 장 한 장 종이로 감싸 정자나무를 만들기도 하였다. 지역민과 꾸준히 호흡하며 함께 성장해온 팔판작은도서관은 2021년, 「우리 마을 아이돌봄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마을 중심의 돌봄 체계를 도서관에 구축하고자 한다.

주 소 : 김해시 덕정로 68, 팔판마을e그린3차아파트 관리동 지하1층

전 화 : 055)312-9822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토 09:00~17:00(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일반 추천도서

어린이라는 세계  
글쓴이\_ 김소영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고민하고,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추천 거제시립장평도서관

부지런한 사랑  
글쓴이\_ 이슬아



이슬아 작가가 글쓰기 교사로 일했던 글방들에서 작가가 가르치고 또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다양한 연령의 글방 제자들의 문장들과 메시지를 통해 삶에 대한 영감을 얻고, 글쓰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추천 거제시립장평도서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글쓴이\_ 우종영



30년간 아픈 나무를 돌봐온 나무 의사가 나무에게 배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책. 이 책을 통해 바쁜 삶에 지친 성인들이 편안한 심을 얻을 수 있다.

추천 거제시립옥포도서관 이보람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글쓴이\_ 손미나



화려한 이미지에 가린 어두운 내면을 비춘 손미나 작가의 심리 에세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추천 거제시립옥포도서관 이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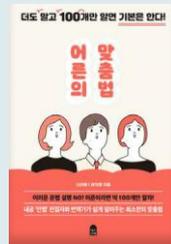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글쓴이\_ 정호승



“수선화에게”로 유명한 시인 정호승의 시와 산문에 엮어 만든 작품집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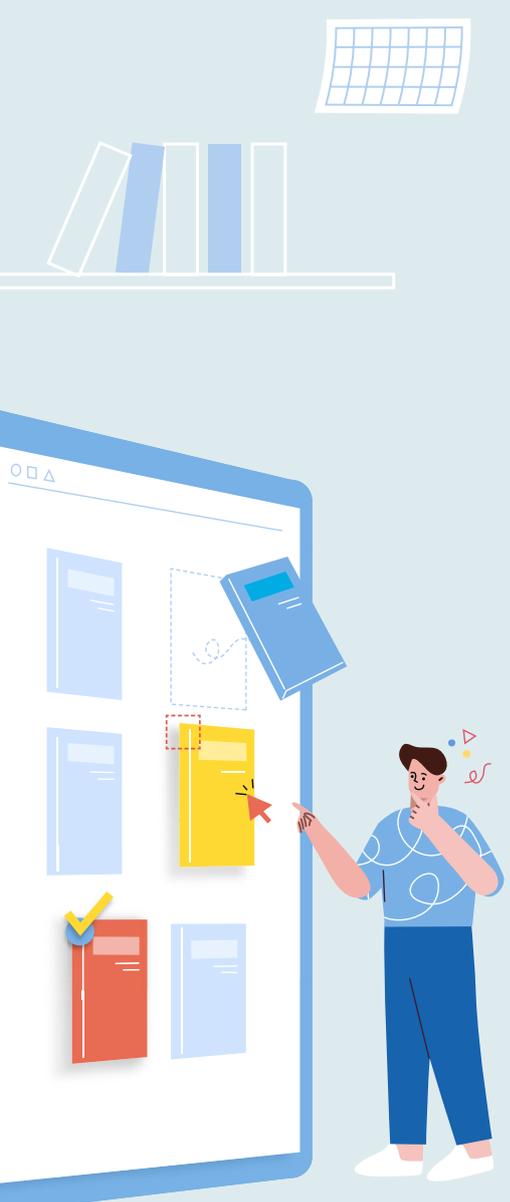
추천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강귀원

어른의 맞춤법  
글쓴이\_ 신선해, 정지영



희안하다? 희한하다? 향균? 향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단어가 맞았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맞춤법 틀리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볼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을 때 추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맞춤법 책이다.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강소영



### 그림책 레시피

글쓴이\_ 사랑는, 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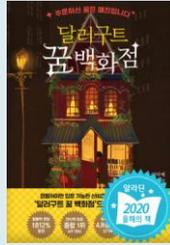


그림책을 읽고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요리 활동을 소개한 책이다. 그림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요리를 하고, 감상을 나누는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준다.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김현진

### 달리구트 꿈 백화점

글쓴이\_ 이미예



잠들어만 입장할 수 있는 백화점에서 꿈을 판다는 것이 기발하며 손님들이 꿈을 꾸고 여러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준다.

**추천** 고성동부도서관

### 네가 혼자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쓴이\_ 안상현



작가의 솔직한 경험과 말들로 일상에 지친 나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책이다.

**추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이지연

###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글쓴이\_ 장강명



글 속의 인물들이 자신의 운명패턴에 묶여 살지만, 패턴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또 비록 불완전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한때를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여준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개체에게 “따뜻한 한 때”가 가능한 것은 순간순간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추천**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강귀원

### 책 한번 써봅시다

글쓴이\_ 장강명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작가는 '책이 중심에 있는 사회'를 위해 저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펼쳐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책을 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는지 친근한 태도로 설명해주고 있다.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류주연

### 명랑한 은둔자

글쓴이\_ 캐럴라인 냐



점점 피폐해져가는 감정의 시대에 나를 보듬어 주고 공감과 함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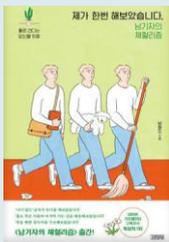
**추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황명희

에세이를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세계로의 확장을 뜻한다. 이 책에 실린 캐럴라인 냐의 에세이는 고독과 관계에 대해 함께 말하고 있다. 작가가 자기만의 명랑을 발견하는 순간을 지켜보며 나의 삶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류주연

###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글쓴이\_ 남형도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알게 된 것을 담은 책으로 읽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추천** 고성동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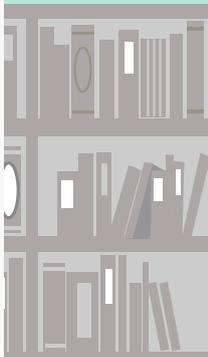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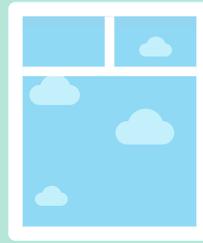




# 가장 안전한 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창원·진주·거제·양산·거창에서 비대면으로 이용”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도서관 휴관이 잦은 요즘, 책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다독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 비대면으로 대출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이다. 비단, 안전뿐 아니라 24시간 운영돼 그간 도서관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대출·반납 가능

스마트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베스트셀러 및 신간도서를 가까운 주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다. 'U-도서관'이 문화체육 관광부의 공식 명칭이지만, 참여도서관별 이름을 달리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 설치된 6개 U-도서관의 이름은 '스마트도서관'이다.

스마트도서관은 상호대차(타 도서관 소장 도서대여), 무인예약, 스마트도서관 보유 도서 대출이 가능한 데다, 도서관별로 24시간 또는 심야시간까지 운영해 도서관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웠던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및 대출

각 도서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경남대표도서관의 스마트도서관 이용을 예로 들면, 예약 권수는 1인당 2권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를 예약 신청할 수 있다. 대출가능 SMS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스마트도서관을 방문해 대출하면 된다. 예약자가 대출가능 안내 문자를 받은 후 3일 이내 대출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 취소되고 대출예약 취소 이력이 3회 이상인 경우, 3개월간 대출예약 서비스가 제한된다. 스마트도서관을 처음 이용한다는 손삼임(창원시 마산회원구) 씨는 “코로나19 걱정으로 도서관을 잘 이용 하지 못했는데 읽고 싶은 책을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하고 비대면으로 대출할 수 있어 걱정이 놓인다”며 이용 소감을 밝혔다. 쉽고 편리한 스마트도서관은 2012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출발공원과 김해시청역, 거제시청에 추가로 구축될 예정이다.

### 경상남도 스마트도서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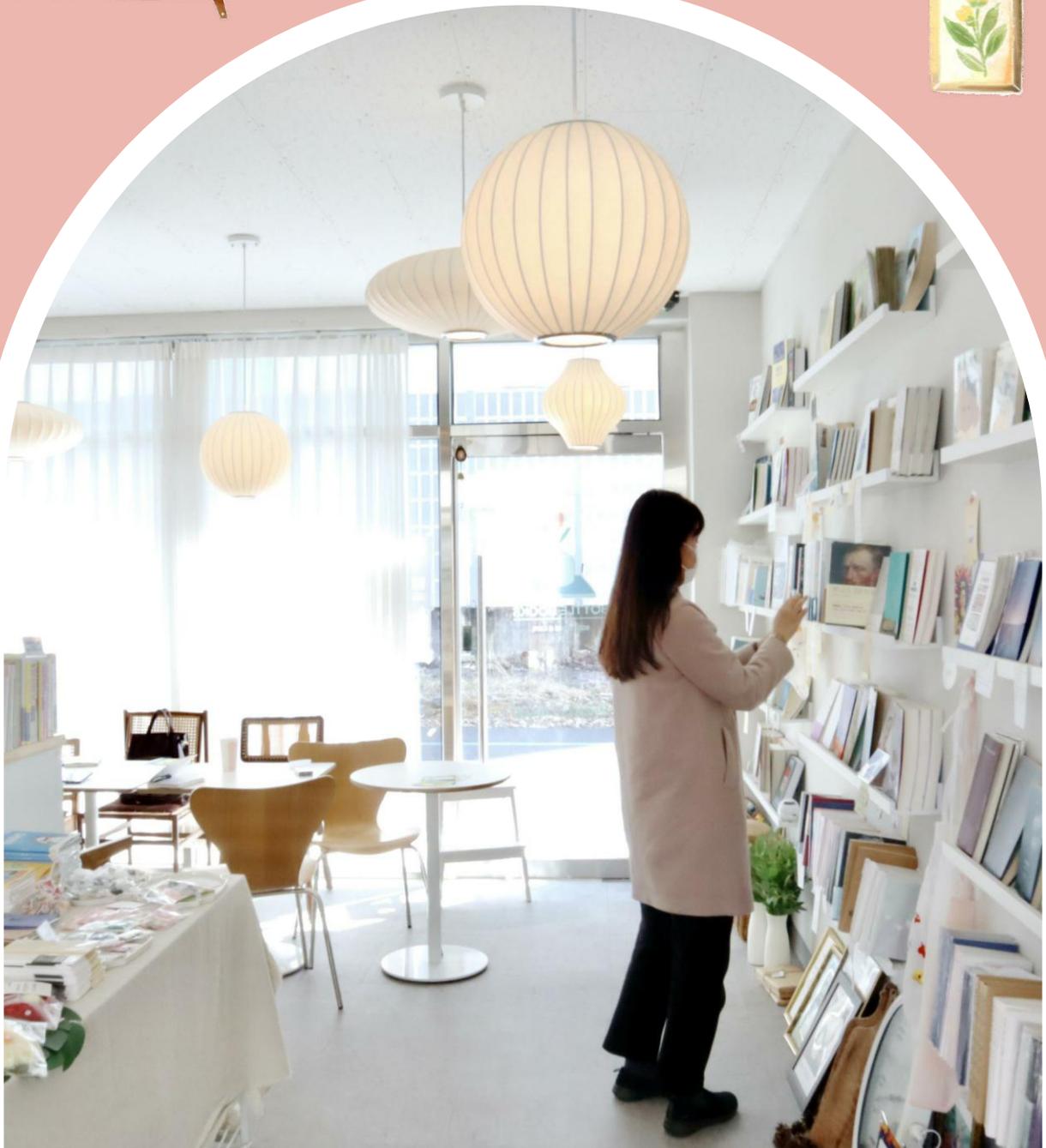
창원	
경남대표도서관 스마트도서관	24시간 운영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1층	
진주	
진주시립도서관 스마트도서관	07:00~22:00
진주시 평거로 249 진주시립서부도서관 주차장 내	
거제	
거제시립도서관 스마트도서관	06:00~24:00
거제시 거제중앙로 1641 상문동주민센터 주차장 내	
양산	
양산시립도서관 스마트도서관	05:00~24:00
양산시 강변로 441 양산지하철역 2층	
거창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스마트도서관	24시간 운영
1호-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거창군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앞	
2호-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	





한 잔의 음료와 한 권의 책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에 대하여,

진주 독립서점, <보틀북스>



## Q1. 먼저 책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틀북스 책방지기 채도운입니다.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책방을 차린 지 3년째 접어들었네요.

## Q2.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책방을 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직장이 서울에서 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저 역시 진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서점을 많이 다녔어요. 베스트셀러나 잘 팔리는 책, 토익책, 입시 관련 문제집들이 주로 진열되죠. 그러다 독립출판물을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책읽기 같은 독서모임이나,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모임들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왜 진주에는 없을까.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서점도, 독서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러면 내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독립출판물도 팔고 독서모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보틀북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 Q3. 책방 이름을 보틀북스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이름 그대로 보틀(Bottle)과 북스(Books)를 합친 거예요. 보틀은 하나의 병, 음료를 뜻해요. 그래서 보틀북스는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요. 북스는 뜻 그대로 책들을 뜻하는데요. 저는 책 한 권 읽으면서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따뜻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가게명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 Q4. 다양한 독서모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임들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서점을 열자마자 독서모임부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독서모임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그룹당 10명씩 나누어 운영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룹 하나로 시작해서 그룹들이 점차 늘더니 나중에는 20개의 그룹까지 늘었어요. 독서모임 멤버들이 꾸준히 모이다 보니, 책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해보자 해서 독서노트를 만드는 북바인딩클래스, 아크릴화그리기, 영어동화읽기, 필사모임 등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Q5. 독서모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독서모임의 목적은 한 달에 1권의 책을 1년 동안 읽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2권, 시, 소설, 예술, 인문학 등 편독없이 읽을 수 있도록 골라 1년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있어요. 좋은 책임을 알면서도 읽기 어려워서 버려둔 책들이 많은데 억지로라도 한 달에 1권씩 읽음으로써 자신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점 운영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어요. 수익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이 서점을 운영하면서 얻을 게 많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모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연결되는 것이 생각 이상의 큰 힘이 있어요. 지금 외울 수 있는 이름이 100명이 넘는데,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연결되고, 나를 중심으로 주변의 네트워크들이 넓어지는 느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 Q6. 상황이 좋지 않아 모임들을 운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모임들은 모두 취소가 되었고, 현재는 비대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데요. 줌으로 독서모임을 해보니 줌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으로 얼굴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서 카카오톡으로 타이핑하는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임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특히 보틀북스의 모임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서모임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는데 대면으로 하면 책을 사하지 않아도 음료를 한 잔씩 드시니까 모임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었는데, 비대면 모임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수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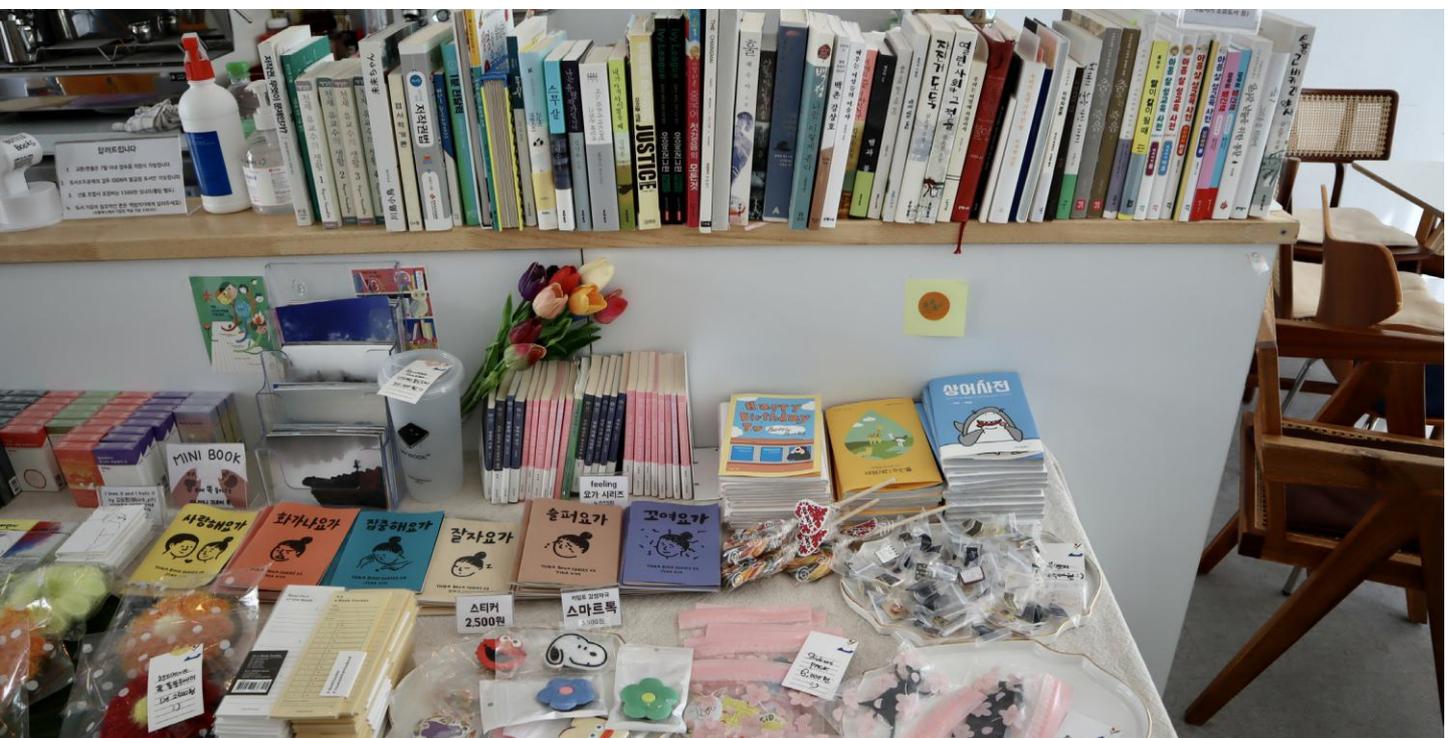
**Q7. 온라인 필사모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필사하는 것은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직장인들은 또 바쁘는데,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힘든데 필사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아주 짧은 문장들은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쓸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읽고 따로 적어두었던 문구들은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마음에 꽂히는 문장을 보고 '이 책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것만으로도 필사모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Q8. 마지막으로 「도서관 가는 길」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코로나우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디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꼭 박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슬픔도 줄 수 있고, 모든 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책을 통해 코로나우울을 극복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동네서점을 들러 직접 책을 골라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틀북에서는 다양한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필사모임과 영어뉴스읽기, 홈트출책모임 등 많은데요. 집에만 있다고 너무 우울해 마시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조금씩 해나가면 어떨까요.





<보틀북스 책방지기가 추천하는 책>

① 『82.7』, 손준수

책 제목인 82.7은 대한민국 평균 남녀 수명을 말해요. 책 가격도 8,270원이고 쪽수도 82.7쪽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7/10으로 잘려져 있어요.)

이런 점이 정말 매력적인 책인데요. 더욱이 작가가 직접 책마다 각기 다른 향을 한 방울씩 묻혀두기도 해서, 더 정감이 가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독립출판물로 동네독립서점에서 쉽게 구입가능합니다.

②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우리 사회에 대두되어있는 사회문제들, 혐오발언,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 참사 등의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제도가 사람을 모욕할 때 그것을 모욕이라고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난 장소에 따라 삶을 시작하는 신체적 조건과 사망률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지금, 보틀북스에서는>

① 한달, 한권, 일년 프로젝트

다양한 장르의 책 12권을 선정하며 한 해 동안 읽는 모임 책을 읽는 것과 모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에 한 번만 모인다.

② 필사모임

책방지기가 100여권의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필사하는 온라인 모임으로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 동안 진행한다.

③ 정기구독 서비스

책방지기가 선정한 책 1~3권을 매달 집으로 배송해주는 정기구독 서비스다.

④ 책 배달 서비스

서점 인근 지역에 책방지기가 직접 책을 들고 배달가는 서비스로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운 서점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서비스다.

⑤ 영어뉴스 한달락 스터디

책방지기가 매일 오전 9시에 CNN, NYT, BCC 등 영어뉴스를 보내면 자율적으로 해석하거나 녹음한 것을 나누는 모임이다.

※ 더 다양한 모임은 보틀북스 인스타그램(@bottle\_book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추천도서



## 긴긴밤

글쓴이\_ 루리

### 추천 사유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코뿔소와 코뿔소 품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 '우리'와 연대, 사랑, 의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설이다.

추천 거제시립장평도서관



## 아주 특별한 동생이 생겼어

글쓴이\_ 안네마리 노르덴

### 추천 사유

이제는 흔해진 외동아이들이 비슷한 또래의 낯선 친척 가족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있는 책. 아이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가르쳐줄 것이다.

추천 거제시립목포도서관 황초롱



## 아무도 이기지 않는 운동회

글쓴이\_ 김하루

### 추천 사유

마음 놓고 뛰어놀기 힘든 시기입니다. 다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른 오길 바랍니다.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송준승



## 팡 없는 뽐기기계

글쓴이\_ 곽유진

### 추천 사유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추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박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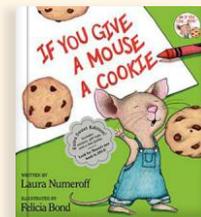
## 세상에서 제일 달고나

글쓴이\_ 황선미

### 추천 사유

현재 상황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예전처럼 행동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다.

추천 고성동부도서관



## 꼬마생쥐에게 과자를 주지 마세요

글쓴이\_ 라우라 조페 누메로프

### 추천 사유

꼬마생쥐를 마치 키우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아마 엄마이기 때문이겠지. 당연한 듯 요구하지만 믿지 않고 왠지 다 들어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과자'를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경고? 이상하게 5살 아이도 자주 읽어달라고 한다.

추천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강귀원



## 늙은 아이들

글쓴이\_ 임지형

### 추천 사유

어른 못지않게 바쁜 스케줄 속에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 그런 하루 속에서 아이들의 주체성은 안녕할까?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늙어버린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내는 모험을 통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추천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류주연



# 상반기 도서관 행사 일정

Library  
Schedule



Gyeongnam Library



## | 도서관 주간 (4. 12. ~ 4. 18.)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리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독서퀴즈 등(대면·비대면 병행)

경남대표도서관  
문사철 아카데미<철학편-고미숙>  
4. 17.(토) / 비대면(줌)  
어린이 교육 뮤지컬<피노키오의 우당탕탕 모험극>  
4월 18일(일) / 대강당

김해시립진영한빛도서관  
작가초청강연, 독서프로그램, 가족공연 등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도서전시, 행운의 뽑기, 도서관 퀴즈 맞추기 등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인형극 공연, 재활용 공예, 테마 기획 전시 등

창원시립성산도서관  
가족체험행사, 원화전시, 동화구연 등(대면·비대면 병행)

## | 작가와의 만남 / 강연

김해기적의도서관  
김목인 x 편해문 “노래가 있는 북토크!”  
4. 11.(일) 14:00 / 다목적강당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이슬아 작가 초청 강연  
5. 15.(토) 14:00 / 커뮤니티실  
초보투자자를 위한 소액 부동산 투자 A-Z  
6. 13.(일) 14:00 / 커뮤니티실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학부모 인문 하브루타 4. 10.(토) 10:00 / 시청각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6. 19.(토) 10:00 / 시청각실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마녀체력>이영미 저자 특강 4. 17.(토) 14:00 / 문화공연장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커피와 인문학의 향연 6. 19.(토) / 다목적실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과학자의 서재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4월 중(대면·비대면 병행)

**함안군립칠원도서관**

아라홍련, 사진에 담다  
7. 10. ~ 7. 18. (시청각실, 함안연꽃테마파크)

**| 인문학강좌**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우리 동네 썬표 인문학 「예술, 그 속의 인문학」  
4월 매주 토요일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김해도서관 인문학교 「코로나19시대, 환경과 인문학」  
4월 매주 수요일 / 시청각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

김해지혜의바다의 시선 2월~12월(대면·비대면 병행)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그림책 인문학 5월~7월 / 밀양도서관, 관내 중·고등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지역인문학센터 「삶은 여행이다」  
4월~6월 / 시청각실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내 삶의 힘이 되어주는 인문학  
4월~9월 / 모듬방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힐링의 인문학 7. 3. ~ 7. 17. / 시청각실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영화 인문학 산책 4. 9. ~ 4. 30. / 시청각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지속가능한 그린 아카데미  
5월~11월 / 시청각실·세미나실  
살아있다는 건  
5월~6월 둘째 주 토요일/시청각실

**창원성산도서관**

2021 채움과 비움의 성산인문학  
3. 31. ~ 4. 28. 매주 수요일(비대면)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책으로 소환하는 우리 지역 옛 이야기!  
5월~6월 / 시청각실



## | 문화 프로그램

### 거제시립장평도서관

상반기 문화강좌 3월~4월(비대면)  
• 신박한 정리수납 외 3개 강좌 운영

###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3월~6월/시청각실  
• 중국어, 캘리그래피, 엄마심리수업 등 운영

###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메이커 프로그램「Hello, Maker!」 4월~8월 / 도서관

### 김해시립진영한빛도서관

영어의 숲 4. 7. ~ 6. 23(비대면)

###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자수의 첫걸음 프랑스 자수 4. 7. ~ 6. 9. / 강좌실  
색연필로 그리는 보태니컬 아트 4. 9. ~ 6. 11. / 강좌실

### 마산회원도서관

인생이모작「5060 신중년 아카데미」 3. 9. ~ 5. 25.(비대면)  
위드맘 영어그림책 여행 4월~6월(비대면)

###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3월~6월 / 도서관 임시관사  
• 하브루타, 독서코칭법, 어린이 동화구연 등

###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3월~7월  
• 캘리그래피, 자수, 힐링서예 등

### 별밤도서관 야간 프로그램 3. 24. ~ 6. 30.

• 문화체험학습지도자 자격증반 운영

###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4월~6월 / 시청각실·강좌실  
• 가족공예, 책놀이지도사자격증(3급) 등

###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4. 7. ~ 6. 26. / 다목적실  
• 오파세대의 스마트폰 활용교실, 홈카페 커피만들기 등

### 경상남도교육청 진해도서관

시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3월~11월 / 진해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나도 책 한번 내볼까? 3. 17. ~ 6. 16. / 문화강좌실1  
아기랑 엄마랑 오감 북놀이 3. 20. ~ 5. 8. / 문화강좌실1

###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3월~6월/통영도서관 및 관내 숲  
• 식탁 위의 세계사, 라탄 공예, 그림책과 함께하는 숲놀이 등

### 통영시립도서관

제2기 비대면 문화프로그램 3. 6. ~ 4. 24.(비대면)  
• 미술관 속 코딩, 빛의 마술사 야경디자이너 등

### 다문화 프로그램 4월~11월

• 다문화 한글교실, 찾아가는 다문화 인형극 등

###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3월~5월 / 강좌실·시청각실  
• 시문학, 천아트, 캘리그래피, 업사이클링 수업 등

### 취약계층 프로그램 4월~6월/하동도서관, 예손복지센터 등

• 열씨구나 한가락, 나의 청춘을 봄! 등

###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책으로 소환하는 우리 지역 옛 이야기! 5월~6월 / 시청각실



###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찾아가는 취약계층 프로그램 3. 5. ~ 6. 25. / 열린지역아동센터  
평생학습프로그램 3월~7월/시청각실  
• 쉽게 쓰는 책쓰기, 드론 입문 등



###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 4. 7. ~ 7. 28. / 평생학습실  
• 독서미술치료, 생각이 쑥쑥 꼬마킹콩 과학실험 등

## | 기타 프로그램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팔딱팔딱 목욕탕 원화아트전시회 4. 6. ~ 4. 20. / 어린이모자자료실  
박완서 작가 타계 10주기 애독(愛讀) 전시 4월~5월 / 북카페

###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토요 인형극 5월 ~ 8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5:00

### 김해기적의도서관

기적의 가족, 책장을 분양해드립니다!(가족 북큐레이션) 3월~12월

###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

북술랭가이드(나만의 책 가이드 만들기) 3월~12월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비대면 자료대출(택배 배송) 2월~7월  
온라인 독서행사 3월~6월  
• 인문학강좌, 마음치유프로그램 등

###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5월~10월  
• 독서릴레이, 작가초청강연, 체험행사 등

###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신박한 방콕 책놀이 3월~12월

###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세계 책의 날 퀴즈 퀴즈! 4. 2. ~ 4. 30. / 종합자료실  
과년도 잡지 나눠 드려요! 5. 8. ~ 5. 30./로비

###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행복한 책 꾸러미 3월~11월 / 자료실

###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2021 도전! 토지 3월~11월 / 종합실

### 진주시립도서관

북스타트 배부 4월 ~ 소진 시까지/시립도서관 5개소  
시민독서감상문대회 7. 26. ~ 9. 17. / 시립도서관 6개소

### 경상남도교육청 진해도서관

어린이 독서 챌린지 3. 10. ~ / 진해 및 동부도서관

###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도전! 독서왕 3월~11월 / 어린이자료실

### 함안군립칠원도서관

내가 책 속 주인공 4월 중(비대면)

###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카네이션 모스 화분 만들기 5. 9.(일) / 시청각실

###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3월~12월(소진 시까지) / 어린이자료실

## 경남공공도서관소식

### 경남대표도서관

#### 경남대표도서관, 차별화된 『특화 코너』 신설 및 운영

경남대표도서관은 올해 공간혁신을 통하여 3개의 특화 코너인 ▲웹툰자료실, ▲예비맘 휴라운지, ▲VR 체험 존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웹툰 자료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인 웹툰(Webtoon)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의 문화인재양성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이용자의 창의력 고취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해 플랫폼별 인기 웹툰을 구비하였다.

『예비맘 휴라운지』는 임신부들의 독서태고를 위한 맞춤형 전용공간으로 임신과 태교, 육아 관련된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VR 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증진하는 『VR 체험 존』도 이용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거창도서관(관장 전인찬)은 경상남도교육청의 2021 취약계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월부터 거창 관내 3개 기관에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거창군 <삶의쉼터> 지체장애인과 '책으로 더불어 가는 세상'을 3월부터 8월까지, <마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친구랑 함께하는 책놀이'를 3월부터 6월까지, <동례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책이랑 친구 하자'를 3월부터 6월까지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문화체험 활동을 한다.

### 고성동부도서관

#### 도서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

휴관기간: 2021년 상반기 예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 자료 라벨 재정비 작업으로 서가 환경 새롭게 단장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관장 허윤금)은 소장 도서의 보존 가치 향상과 쾌적한 이용 환경 유지를 위해 노후화된 자료 라벨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성도서관의 도서들은 도서관과 역사를 함께하여 오랜 시간 이용자의 곁을 지켜왔다. 이에 따라 색이 바랜 라벨과 오래 전 수기로 기록된 청구기호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장도서가 95,000여권에 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하에 사서 실습생 및 근로장학생 등이 함께 작업하였다. 라벨 재정비 작업을 통해 새 책처럼 단장할 고성도서관 도서들이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다.



###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 2021년 나는 집에서 크게 보겠네

50세 이상 새청년을 위해 올해 진영도서관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가기도 겁나고 작은 글씨 때문에 책 읽는 것도 불편했다면 이제 집에서 편하게 큰글자 책으로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읽고 싶은 주제를 고르면 책 꾸러미를 집으로 배달해준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월1회 1꾸러미 한하여 운영하는 '주제별 큰글자 도서 꾸러미'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로, 꾸러미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도서관 종합자료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받는다.

## 김해시립장유도서관

###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음치유 전용 SNS(인스타그램) 「@ 장유 치유서관」

- 오늘의 치유문구
- 도서관 치유 프로그램 소식
- 이벤트 개최 등 치유 콘텐츠 정보 공유

### 「마음봄 책장」

- 장 소 : 장유도서관 1층 커뮤니티실
- 매월 선정 주제관련 치유 북큐레이션

##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 유아어린이 자료실 환경 정비

김해도서관은 지난해 11월 유아자료실(이야기동화방) 환경개선 공사를 마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기존 유아자료실 '이야기동화방'의 문과 벽을 철거하고 편안한 독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인테리어 서가를 배치하는 등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독서 욕구를 자극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노후화되어 사용에 불편이 컸던 자동대출반납기를 새롭게 교체하였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귀엽고 사랑스러운 펭귄 디자인으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나 혼자 한다' 행사를 운영, 자동대출 반납기에서 5권 이상 책을 빌린 후 영수증을 데스크에서 제시하는 이용자 선착순 70명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 김해기적의도서관

### 청소년을 위한 책큐레이션 '\*\*\*기적지' 운영

▷ 운영내용 : 청소년들이 원하는 주제의 책을 찾고,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맞춤 북큐레이션을 제공

▷ 현재 큐레이션 중인 테마

#1 : 책 읽기 싫은 너를 위해 준비해봤어 (선정 도서 4권)

#2 : 이런 담임 선생님 어때요? (선정 도서 5권)

▷ 연계활동 : 속닥속닥 'Rolling Paper Book'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나 간략한 감상평 등을 익명의 롤링 페이퍼로 나누기)



##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 지역 인문학 센터 운영

주제: 보물섬 남해에서 만난 인문학 「서포 김만중」

- 남해군민에게 인문학을 통한 통찰력, 지혜, 소통능력 함양 및 삶에 대한 성찰과 나의 존재 이유 발견, 학문의 기초적인 인문학적 지식을 높이고 자기계발 기회 부여하기 위하여 5월 22일(토)~ 9월 4일(토)까지 4회에 걸쳐 강사님을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남해와 노자니 할배 이야기(5월), 김만중 문학과 여성들(6월), 소설 「사씨남정기」 속 역사 여행(7월), 노도에서 건진 나의 유배 시첩 연작(9월)이다.

## 경남공공도서관소식

###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 2021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밀양도서관은 코로나19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프로그램'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프로그램'은 3개 과정으로 장애인, 저소득층어린이, 다문화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관련 자격 및 다년간의 강의경력을 보유한 전문 강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 대상자의 사회적 향상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 사천도서관 임시관사 연장 운영

사천도서관의 공사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임시관사 운영을 연장한다.

- 운영기간: 2020. 7. 1.~2021. 7월 중
- 운영일시: 화요일~일요일 09:00~18:00 / 월요일 휴관
- 운영내용
  - 신간도서 위주 대출·반납
  - 상호대차 및 택배서비스
  - 월별 행사 프로그램 및 독서동아리 운영
- 임시관사 위치: 사천시 사남면 유천길 214

###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인 산청도서관과 4개교 통폐합으로 3월 기숙형 거점학교로 신설개교하는 산청중학교의 업무협약체결을 맺었다. 신설학교도서관 구성에 따른 서가 배치, 도서 정리 작업 및 공간구성에 따른 컨설팅 뿐 아니라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진로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 2021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산청도서관은 북스타트 운동으로 지역 내 영유아들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이다. 도서관에서는 월령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에 맞는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 가방, 그리고 스카프, 손수건, 스케치북, 퍼즐 등의 기념품을 나누어주고 있다. 올해는 초등단계 북스타트인 책날개꾸러미를 제작하여 추가배부 할 계획이다.



###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 지리산을 품은 복합 독서 문화 공간 산청지리산도서관

산청지리산도서관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개관한 27번째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이다. 자연 친화적 복합 독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지리산자락의 특성을 살려 내부가 목조 건축 형태의 도서관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 유아·어린이·청소년·일반 자료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1층 전체가 오픈형으로 일반자료존, 어린이자료존, 유아 및 디지털 자료존으로 되어있으며 뿌리모양서가, 1915천왕봉서가 등 특색있는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2층에는 강연, 문화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청각실, 강좌실이 있으며 양천강을 바라보며 휴식과 열람이 가능한 북카페, 옥외데크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 3만7천여권과 전자책, 전자신문 등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산청지리산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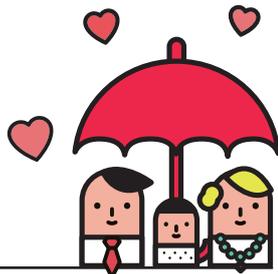
## 진주시립도서관

### 진주지역에 문학자판기 설치

진주시의 다중이용시설에 문학자판기를 설치해 대기하는 시민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설치된 문학자판기는 사용자의 버튼 선택에 따라 짧은 글, 긴 글 두 가지 형태로 문학작품 속 글귀가 무작위 출력된다.

설치장소는 진주시청 민원실 1대, 서부보건지소 1대이다.



##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 도서관과 행복한 동행(취약계층 프로그램)

- 기간: 3.10.~7.21.(수) 13:00~15:00
- 대상: 다문화가정
- 장소: 내일을 여는 집
- 내용: 기초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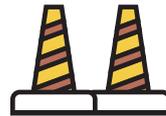
##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 창녕도서관 별관 내·외부 리모델링

창녕도서관(관장 강연희)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별관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했다.

도서관 별관 환경개선공사는 지난 8월17일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완료했으며, 별관 외벽, 바닥·천장·계단 보수, 강좌실, 북카페 정비, 보존서고 수용량 증량 및 전동 모빌렉 교체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관계자는 “쉼과 문화의 공간으로 새 단장한 도서관 별관이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친숙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 도서관 재정비 시행

코로나 19로 인해 휴관과 개관을 거듭하는 동안 남지도서관은 도서관의 재정비를 시행했다. 장서점검을 통해 이용 가치가 있는 도서들을 선별하고 디지털자료실의 이용자 pc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이 더 쾌적하게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거리두기를 위해 책상 전면에 블라인드 설치를 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롭게 표지판을 곳곳에 새롭게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을 덜도록 하였다.



# 경남공공도서관소식

##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 진동도서관,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다!

- 진동도서관 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
- 주변 경치와 어우러진 산뜻한 외관 완성
- 창호 교체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 제공



## 성산도서관

### 성산도서관 마일리지북 운영

성산도서관은 시민독서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 성산도서관 마일리지북'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 도서 대출, 도서관 행사 참여 등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점수에 따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단계별 마일리지 달성 이벤트, 우수 참여자 선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성산·상남도서관 자료실에서 마일리지북을 배부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행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다.

## 마산회원도서관

### 마산회원도서관 리모델링

1995년에 개관된 마산회원도서관(건축면적 2,083㎡, 지하1층, 지상3층)은 노후화된 건물을 개·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5월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된다. 1층의 어린이자료실과 로비의 통합, 2층의 개방공간을 복개하여 증축하고, 제1자료실·정기간행물실·학습실 등을 종합자료실로 통합 개편해 확충, 3층의 디지털실과 제1자료실을 통합 확장하는 등 이용자 편의 위주의 열린 개방형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어 시민 친화적인 편안한 독서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 공사기간 및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 마산도서관,

### 독서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공동 추진에 박차

마산도서관(관장 황현경)은 양덕2동지역아동센터, 꿈꾸는 산호작은도서관, 창원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2021년 독서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찾아가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독서사업 공동 협력 추진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정착을 위한 도서 지원 및 순회문고 운영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독서 문화 사업의 공동추진 및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되었다.

양덕2동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공닥공닥 신나는 책놀이' 등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꿈꾸는산호작은도서관에서는 '나를 담은 책 만들기' 등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창원 보호 관찰소에서는 청소년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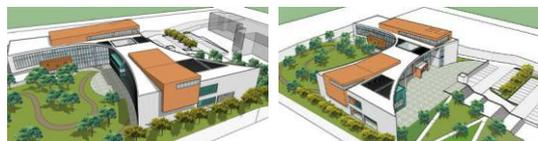


##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첫 삽을 뜨다!

창원도서관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되고 분산된 자료실이 있는 통합 자료동을 신축한다. 자료동은 올해 4월 착공하여 2022년 5월 개관할 예정이다.

신축 자료동은 기존 5개 자료실을 2개로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풍성한 독서문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통영시립도서관

### 특별한 그림책 코너 운영

- 운영기간: 2021. 2. 23.(화) ~ 2021. 6. 30.(수)
- 장 소: 통영시립도서관 유아자료실
- 내 용: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컬렉션, 자연의 경이를 알아가는 과학 관련 그림책, 예술놀이 지원 하는 아티비티 그림책 115종 비치



##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 시가 있는 울타리, 시로 시작하는 도서관

도서관 정문 울타리에 매월 시를 전시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특별히 트로트 가사를 걸었는데요, 일상적으로 지나가던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흥얼거리며 멈추었다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후문과 연결되는 옆 데크는 동백이 항상 피어있어 도서관으로 오려면 시를 통과하거나 꽃길 밖에 길이 없어요. 도서관으로 가는 빠른 꽃길, 시를 즈려 읊고 오시옵소서.



##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 청정한 도서관 생활, 책 소독기와 함께해요!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관장 노광석)은 지역민의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책 소독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책 소독기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간편한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직접 자외선램프와 바람을 이용해 먼지와 세균을 없애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책 소독기는 책을 통한 바이러스 교차 감염을 차단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 나는 저축하러 도서관에 간다!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에서는 어린이자료실 내 설치된 독서통장 정리기를 활용한 '독서통장 이용 활성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통장은 어린이 도서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발급 가능하며, 자신이 대출하고 반납한 도서의 목록을 통장의 형태로 보여준다. 어린이들이 독서통장 정리기를 이용해 스스로 통장을 정리하며 독서의 즐거움 선사하고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자가대출반납기와 겸용으로 쓰이는 독서통장 정리기를 이용함으로써 어린이가 직접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며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 2021년 운영하는 행사로는 ▲나는 저축하러 도서관에 간다 시즌2, ▲2021. 저축왕을 찾아라 등이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어린이 도서대출회원 가입 증가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 아기는 책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 책으로 성장하기 - 2021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

함양도서관은 2021년에도 지역 내 영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책꾸러미를 선물한다. 북스타트 책꾸러미는 총 3단계로 나뉘며, 단계별로 그림책 및 기념품이 다르게 구성된다. 1, 2단계 꾸러미는 즉시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 소진되었던 3단계 꾸러미는 4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오감발달 책놀이터' 및 '책 읽어주세요'는 4월부터 어린이자료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경상남도교육청 함천도서관

### 자료실 이용환경 개선

함천도서관(관장 배향숙)은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료실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폐가제로 운영중이던 디지털자료실을 이용자들이 자료를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개가제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종합자료실과 붙어 있던 디지털자료실 벽면을 제거하고 이용자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테이블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 도서관이 열지 않을 때 우리는,

김해시립진영한빛도서관 길경덕 (사서)

2020년 한 해는 여러모로 잊지 못할 시기였다. 사서로 십 년을 일하면서 전염병으로 도서관을 닫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그리고 처음 전체휴관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길어도 여름 썸에는 (날씨가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믿고 있었다) 정상화될거라 여겼기에 개관 중에는 하기 힘든 일을 모아 직원들과 함께 하나씩 수행했었다.

전 직원이 장갑을 끼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들고 흩어져서 장서점검을 하고, 엉켜 있던 보존서고를 정리하고, 도서를 폐기하고, 언젠가 쓸 거라 생각하고 묵혀뒀던 용품들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보내다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그 무렵 사태가 장기화 될 기미가 보여 북레이크서비스(비대면 도서대출반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무원 개인으로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종교/체육/중점시설 점검 등에 동원되고, 사서로서는 처음으로 줌(zoom) 수업을 구상하고, 유튜브 영상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어떻게든 이용자와의 소통 채널을 놓지 않으려 애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 년이 지난 지금은 비대면 강의를 기획하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는 고유의 장점 역시 인정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김민하 (사서)

첫 발령을 받고 신규 사서로 보낸 지난 1년은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해였다. 유례없는 상황으로 도서관이 휴관과 개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서들은 어떻게 하면 휴관 중에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우리 도서관은 휴관 중 기존에 운영하던 대출 서비스의 방식을 바꿔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인 '북딩동'과 '북스루'를 운영했다. 첫 휴관 때는 무료 택배 대출 서비스인 '북딩동'을 운영했는데 이용자들이 꼭 찾던 자료실은 택배 박스가 한가득 차지하고 사서들은 택배 신청 도서 찾기, 대출처리하기, 박스 테이프 붙이기, 송장 붙이기 등 서로 분업해서 마치 택배회사 직원이 된 것처럼 일하기 시작했다. '북스루'는 이용자가 미리 신청한 도서를 도서관 앞에서 차량 또는 도보로 수령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평별 아래서 우비와 장갑, 마스크를 끼고 앉아있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북딩동과 북스루 모두 이전에 해 본적 없는 서비스라 처음에는 서툰 점도 많았지만, 이용자들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책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 가득히 보람을 느꼈다.

휴관 중에는 비대면 대출 서비스 외에도 온라인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도서관이 문을 닫아 이용자들이 직접 볼 수 없는 전시 도서들은 전시 코너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도서관 SNS에 게시했고, 어린이 독서동아리는 온라인 플랫폼인 'ZOOM'을 이용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만들기 재료를 북스루 이용자들에게 나눠주고 QR코드에 만들기 방법 영상을 담아 집에서도 쉽게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개관한 이후에도 우리 도서관은 비대면과 대면 서비스를 섞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 어린이실에서 진행한 겨울 독서교실 또한 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했다. 사서가 직접 진행하는 데다 비대면으로 독서교실을 하는 건 처음이라 신경 쓸 부분도 많고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참여한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고 수업을 재밌어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2021년에도 우리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비대면과 대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용자들이 책을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도서관이 열지 않을 때 우리는,



남해도서관 송인필 (시인, 이용자)

아직 마른꽃들의 노래가 들리는 계절입니다.

오늘 숲길에는 어느새 얼레지와 노루귀가 귀를 열고 푸른 잎을 하늘을 향해 내밀고 있었습니다.

금방 보랏빛 얼레지의 날개짓과 노루귀의 웃음소리가 숲속 가득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연이어 연초록 새싹들이 환하게 푸른 들판을 채우고 하얗고 노란 나비들이 꽃들 위를 건너 하늘에 무늬를 새길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철새들은 따뜻한 남해 바다 방파제에 앉아 아름다운 낙조를 받아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앉아, 봄노래를 들으면서 아침 창을 열고 독서를 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도서관에 앉아 책을 펴고 도서관 특유의 고요한 정서에 젖어 포근한 하루를 보냈을 주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손님인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머물고 어느새 해를 넘긴 지금은 모두가 불안한 때입니다. 우리부터 먼저 질서를 지키고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기에 도서관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어떻게 책을 가까이 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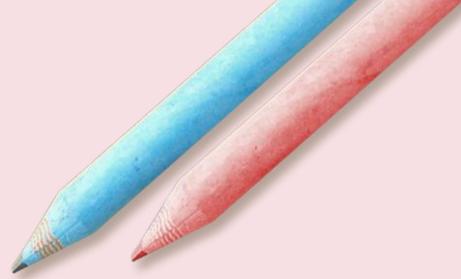
아직도 뉴스에선 매일 추가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가능한 도서관 출입을 자제하고 책을 대여하여 집에서 읽거나 전자책으로 읽습니다.

책을 통한 노마디즘의 세상을 건너는 동안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첨예한 시대를 건너온 지혜로운 삶을 배우기도 합니다.

북극에선 빙하가 녹고 있다는 소식을 오래 전에 벌써 들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기후조건이 얼마나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 하는 순간 어느새 저녁입니다.

어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도서관 마당에 핀 환한 꽃을 보러가야겠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얼른 달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허리를 숙인 어른들이 책을 들고 걸어오는 도서관 소식이 그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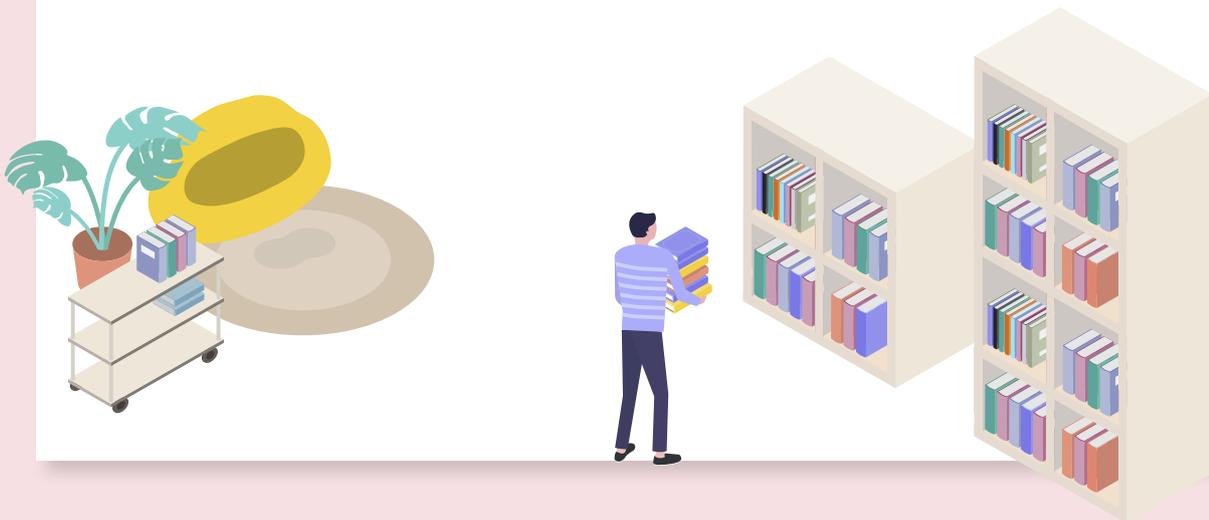
도서관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길에는 늘 다정한 사서선생님들과 도서관 갤러리에 걸린 그림들과, 자료실에 꽂혀있는 많은 책들이 미소지으며 친구가 됩니다. 이 봄, 소중한 도서관 친구들을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윤현지 (사서)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한 작년부터 2021년이 얼마 되지 않은 올해까지 남지도서관을 비롯한 수많은 도서관이 휴관과 개관을 반복했다. 초창기에는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지침에 맞춰 휴관과 개관을 척척해내게 되었다. 개관 시기에는 감염병의 불안으로부터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휴관 시기에는 이용자들이 책과 멀어지지 않도록 북드라이브스루와 북딩동 서비스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책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대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없는 도서관은 쓸쓸하다. 아이들의 조잘대는 소리로 항상 주의를 줘야 했던 어린이 자료실은 텅 비었고 종합자료실에 앉아서 소설책과 시집을 읽으시던 어르신은 도서관이 언제 여는지 문의 전화만으로 존재하고 있다. 모두 알다시피 사서들의 업무에는 대출반납과 이용자들의 응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휴관기간에도 사서들은 그 외의 본래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조잘대는 소리가 없는, 유아실에서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 소리가 들리지 않는, 책으로 자기 꿈을 펼쳐나가는 학생이 없는, 도와드리면 과자하나라도 쥐여주려는 노인분들이 없는 도서관에서 사서들은 그 텅 빈자리를 느끼고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있어서 도서관일 수 있음을 코로나로 인해 이용이 불편해져서야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얼른 일상을 회복해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 도서관이 열지 않을 때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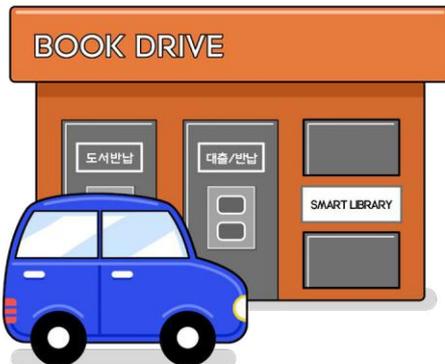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이채은 (사서)

<이용자에서 사서로!>

꿈에 그리던 도서관 사서가 되었습니다.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책을 수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서’ 이것이 이용자였던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 사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문을 열지 않는 도서관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지? 할 일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다리던 첫 발령을 받자마자 막연했던 궁금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관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이용자들의 꾸준한 독서활동을 위한 선배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빌려야 했던 책은 북 드라이브 스루(Book drive through), 북 덩동 등 비대면 도서 대출 및 무료 택배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었고, 대면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들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 배웠던 것처럼 도서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 있는 유기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용자에서 사서가 되었습니다. 삶에 있어 2개월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도서관 문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서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면역이 생겼습니다. 쉽 없이 달려가는 선배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언제나 이용자에게 기억되는 사서가 되겠습니다.



## 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전 필숙

코로나가 빨리 물리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고 만져보고 손도 잡고  
웃으며 살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나오는 동안 나는 이렇게 지냈다  
친구들이 보고 싶으면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수다를 떨며 안부를 묻는다

목요일에는 밤 10시에 하는 미스터 트롯을 보며  
무명가수들이 노래를 정말 잘하네 하며  
나 혼자 웃고 즐기고 나면 밤 2시가 된다

그렇게 보내고 있으니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제 학교에 나오세요  
나는 정말 기뻐다



시화 초록담쟁이

## 80살 가시나의 가족

오정이

자음 ‘ㄱ’과 모음 ‘ㅏ’를 공부했다  
 선생님이 ‘가’ 글자로 낱말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나는 공책에 ‘가시나’ 썼다  
 선생님이 보며 ‘가시나’ 불렀다  
 내 나이 80살에 ‘가시나’로 불러주어  
 소녀가 된 것 같다  
 총각 ‘ㄱ’이 처녀 ‘ㅏ’를 만나 옥동자 ‘가’를 낳는다는  
 문해교실 선생님!  
 힘들게 공부할수록 태어나는 아이들  
 한글은  
 혼자 사는 80살 가시나의 가족이 되었다



시화 초록담쟁이



『어느 멋진 날』, 경남 문해교실 67인 글, 초록담쟁이 그림(책숲놀이터, 2020)

문해교육지원사업을 통해 글을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15년부터 쓴 시들  
 중 일부를 가려내어, 책으로 나누는 소통과 공감을 담은 책, 도서관과 도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들을 만드는 책숲놀이터에서 엮어냈다. 또한 각 시에는 자연을  
 담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초록담쟁이의 일러스트가 함께했다.

# 경 남 지 역 공공도서관

거제	경상남도교육청 거제도서관	637-6311	<a href="http://gjlib.gne.go.kr/">http://gjlib.gne.go.kr/</a>	
	거제시립수양도서관	639-3891		
	거제시립옥포도서관	639-3881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639-3871	<a href="http://lib.geoje.go.kr">http://lib.geoje.go.kr</a>	
	거제시립장평도서관	639-3861		
	거제시립하청도서관	639-3921		
거창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940-8470	<a href="http://library.geochang.go.kr">http://library.geochang.go.kr</a>	
	경상남도교육청 거창도서관	944-8594	<a href="http://gclib.gne.go.kr">http://gclib.gne.go.kr</a>	
고성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	673-8461	<a href="http://gslib.gne.go.kr">http://gslib.gne.go.kr</a>	
	고성동부도서관	670-2916	<a href="http://www.goseong.go.kr/gslib">http://www.goseong.go.kr/gslib</a>	
김해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320-5500	<a href="http://ghlib.gne.go.kr">http://gh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	330-9800	<a href="http://ghjlib.gne.go.kr">http://ghj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진영도서관	345-1995	<a href="http://jylib.gne.go.kr">http://jylib.gne.go.kr</a>	
	김해기적의도서관	330-4651	<a href="http://lib.gimhae.go.kr/main.web">http://lib.gimhae.go.kr/main.web</a>	
	김해율하도서관	340-7161		
	김해장유도서관	330-7461		
	김해진영한빛도서관	330-4810	<a href="http://lib.gimhae.go.kr">http://lib.gimhae.go.kr</a>	
	김해칠암도서관	330-4591		
남해	경상남도교육청 남해도서관	864-0974	<a href="http://nhlib.gne.go.kr/">http://nhlib.gne.go.kr/</a>	
	남해화전도서관	860-3871	<a href="http://www.namhae.go.kr/lib">http://www.namhae.go.kr/lib</a>	
밀양	경상남도교육청 밀양도서관	353-6977	<a href="http://mrlib.gne.go.kr">http://mr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하남도서관	391-1848	<a href="http://hnlib.gne.go.kr">http://hnlib.gne.go.kr</a>	
	밀양시립도서관	359-6036	<a href="http://www.myclib.or.kr">http://www.myclib.or.kr</a>	
	밀양시립영어도서관	359-6045	<a href="http://eng.myclib.or.kr/">http://eng.myclib.or.kr/</a>	
사천	경상남도교육청 사천도서관	853-8401	<a href="http://salib.gne.go.kr">http://sa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삼천포도서관	835-4436	<a href="http://scplib.gne.go.kr">http://scplib.gne.go.kr</a>	
	사천시어린이도서관	831-2966	<a href="http://elc.sacheon.go.kr/">http://elc.sacheon.go.kr/</a>	
산청	경상남도교육청 산청도서관	973-2544	<a href="http://sanlib.gne.go.k">http://sanlib.gne.go.k</a>	
	경상남도교육청 산청지리산도서관	974-1611	<a href="http://sjlib.gne.go.kr">http://sjlib.gne.go.kr</a>	
양산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385-7004	<a href="http://yslib.gne.go.kr">http://yslib.gne.go.kr</a>	
	양산시립삼북어린이도서관	392-5936		
	양산시립서창도서관	392-5880		
	양산시립영어도서관	392-5940	<a href="http://sblib.yangsan.go.kr">http://sblib.yangsan.go.kr</a>	
	양산시립웅상도서관	392-5950		
	양산시립중앙도서관	392-5900		
의령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	572-0941	<a href="http://urilib.gne.go.kr">http://uri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진양도서관	761-2721	<a href="http://jinlib.gne.go.kr">http://jinlib.gne.go.kr</a>	
진주	도동어린이도서관	749-7496		
	비봉어린이도서관	749-7494		
	진주서부도서관	749-5983	<a href="http://lib.jinju.go.kr">http://lib.jinju.go.kr</a>	
	진주시어린이전문도서관	749-5984		
	진주연암도서관	749-5982		
	혁신어린이도서관	749-7490		
창녕	경상남도교육청 남지도서관	526-1490	<a href="http://njlib.gne.go.kr/">http://nj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창녕도서관	532-9501	<a href="http://cnlib.gne.go.kr">http://cnlib.gne.go.kr</a>	
	창녕군영산도서관	530-1931	<a href="http://www.cng.go.kr/ysl.web">http://www.cng.go.kr/ysl.web</a>	
창원	경남대표도서관	254-4811	<a href="https://lib.gyeongnam.go.kr">https://lib.gyeongnam.go.kr</a>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240-4551	<a href="http://mslib.gne.go.kr/">http://ms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	252-3860	<a href="http://jhlib.gne.go.kr">http://jh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진동도서관	271-8144	<a href="http://jdlib.gne.go.kr">http://jdlib.gne.go.kr</a>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78-2800	<a href="http://cwlib.gne.go.kr">http://cwlib.gne.go.kr</a>	
	고향의봄도서관	225-7371		
	내서도서관	225-7481		
	동부도서관	225-7531		
	마산합포도서관	225-7431		
	마산회원도서관	225-7473		
	명곡도서관	225-7326	<a href="http://lib.changwon.go.kr">http://lib.changwon.go.kr</a>	
	상남도서관	225-7411		
	성산도서관	225-7391		
	의창도서관	225-7331		
통영	중리초등통합시설도서관	225-7492		
	진해기적의도서관	547-0095		
	진해도서관	225-7511		
	경상남도교육청 통영도서관	648-8091	<a href="http://tylib.gne.go.kr/">http://tylib.gne.go.kr/</a>	
	통영시립도서관	650-2630		
	통영시립산양도서관	650-2500	<a href="http://www.tongyeonglib.or.kr">http://www.tongyeonglib.or.kr</a>	
	통영시립육지도서관	650-4580		
	통영시립충무도서관	650-2640		
	하동	경상남도교육청 하동도서관	884-7995	<a href="http://hdlib.gne.go.kr">http://hdlib.gne.go.kr</a>
	함안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583-6919	<a href="http://hmlib.gne.go.kr">http://hmlib.gne.go.kr</a>
함양	함안군립칠원도서관	580-3647	<a href="http://www.haman.go.kr/chirwonlib.web">http://www.haman.go.kr/chirwonlib.web</a>	
합천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963-3186	<a href="http://hylib.gne.go.kr">http://hylib.gne.go.kr</a>	
합천	경상남도교육청 합천도서관	932-0521	<a href="http://hclib.gne.go.kr">http://hclib.gne.go.kr</a>	

